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성경말씀: 롬6:1-11

지난 두 주, 사람은 죄 문제, 하나님의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게 된다. 하나님의 부활 파워로 된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화평, 열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기뻐함, 환난, 인내, 체험, 소망, 하나님을 기뻐하게 된다.

그런데 구원받은 뒤 문제가 생긴다. 의문이 생긴다.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되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들이 다, 사실이다.

1. 그러면 앞으로 무슨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없다.

2. 죄를 지을 때 은혜가 더더욱 넘친다. 그러면 더욱더 죄를 지으면 더 큰 은혜가 오지 않겠는가?

죄들의 용서, 1년 감옥 행, 사형, 누가 더 큰 은혜를 느끼겠는가?

이것 참으로 중요한 문제, 이것을 해결해야 참 되게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 >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초보적인 교리를 알지 못하여 죄에 더 크게 빠짐

성도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바른 것을 배우야 한다. 교회는 가르치고 배우는 장소

성도가 무지하면 사탄은 마음대로 그를 활용할 수 있다.

성도의 죄 문제(1-2)

이 문제에 대한 바울의 확언(1-2). 결코 죄를 더 많이 지을 수 없다.

이 말은 매일 매일 죄를 덜 지어야 함을 뜻한다. 특히 심각한 죄를.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있다. 즐겁게 죄를 짓는다. 구원받지 못한 것으로 보면 된다.

성도의 신분(3-7)

성도는 예수님의 죽음, 매장, 부활을 그대로 경험한 사람

하나님은 전가의 원리를 사용하신다(imputation).

첫 아담이 죄를 지을 때 그 이후의 모든 인류가 죄를 지은 것으로 간주하신다.

둘째 아담의 죽음, 매장,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이 일이 전가됨, 우리도 같이 죽고 부활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일은 단순히 법정에서 망치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살아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다. 전가의 결과가 나타나야 한다. 이것이 살아 있는 믿음

죄에 대해 죽은 자(2-5)

바울은 침례를 예로 든다.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3, 고전12:13).

침례: 죽음, 매장, 부활 상징

첫째 우리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죽음으로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음(3). 그 결과 죄와의 관계에서

이미 죽은 자이다. 술주정뱅이가 죽으면 술의 유혹에서 벗어난다. 죽으면 술을 볼 수도, 만질 수도,

마실 수도, 맛볼 수도 없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 수 없다.

생명의 새로움을 추구하게 된다(4).

부활의 파워를 느끼고 실행하며 살게 된다(5). 즉 반드시 변화가 생기게 된다.

죄를 섬기지 않는다(6-11)

구원의 목적: 죄를 섬기지 않는 것(6-7).

그래서 삶의 목적이 죄를 섬기는 것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11).

우리 몸을 의의 도구로 내주어야 한다(12-14)

이전에는 우리 몸을 죄의 도구로 내주었다, 많은 부끄러운 죄를 지었다(21).

그러나 이제는 의의 도구로 내주어야 한다(13).

그래서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바울의 표현 우리를 너무 쉽게 얹어매는 죄(히12:1), 죄와의 처절한 싸움, 경주를 달려야 한다.

어떤 죄를 극복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 목적: 하늘의 모든 존재들에게 자신의 모든 지혜를 알리는 것(엡3:10)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사람이 사람다워야 한다. 목적을 이루는 사람,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가장 큰 일: 창1:26-28,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운다.

즉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 채워야 한다. 결혼의 목적도 하나님을 따르는 씨를 내는 것(말2:15)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초적 인간 창조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 죄, 성화는 이 죄와 투쟁하는 것

1.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잠1:7), 지혜의 시작, 지식의 시작

하나님을 연구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이 가장 큰 죄

어느 의미에서 가장 큰 죄

2. 인간에게 부과된 것: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려 생계를 마련해야 한다(창3:19). 특히 남자들
그러므로 게으름을 피우는 것은 심각한 죄이다. 단 1초라도 허비하면 안 된다.

이 사회를 바꾸려면 열심히 일해야 한다. 일하지 않으려거든 먹지 말아야 한다(살후3:10-12).

특히 학생들, 집중해서 공부해야 한다. 공부도 때가 있다.

공부는 읽고 이해하는 것, 이것이 안 되면 인생이 꼬인다.

독포자는 인포자, 수포자는 대포자, 영포자는 직포자

독서 포기자는 인생 포기자, 수학 포기자는 대학 포기자, 영어 포기자는 직장 포기자

맑은 정신을 가지고 집중해야 한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말할 것도 없다.

영어 단어 하루에 100개씩 외운다. 사전 없이 사는 사람

3. 가정생활

하나님은 독신으로 사는 선물도 허락해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 뜻은 가정 꾸며 다산하는 것
실제 성인들의 죄와의 싸움은 가정에서 일어난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의 의미를 늘 생각해야 한다.

상대를 향해 내 자존심을 다 버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한 규칙이 나온다.

1. 남편과 아내(엡5:22-33)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아내를 대하는가?(엡5:25)

화가 치밀고 큰소리가 나올 때는 이 점을 기억해야 한다.

아내,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하는가?(22) 가정에서 질서를 지키는 것, 이것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2. 부모와 자녀(엡6:1-4)

부모들은 아이들이 이해되게 일을 해야 한다(4). 사춘기 때는 무조건 반대한다. 때를 맞아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합리적으로 키워야 한다. 말을 들어주어야 한다. 편파적이 안 되어야 한다.

아이들: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1). 내가 가장 참기 어려운 것,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질질 끌려

다니는 것, 이것은 부모와 자식 모두가 죄를 짓는 것이다. 앞날이 훤히 보이지 않는가? 부모가

아이 때문에 울고 고생하는 것, 문제는 무엇인가? 내 아이가 객관적으로 어떤 아이인지 전혀

모른다. 주일 학교 교사의 말: 오래된 성도들의 아이들이 오히려 더 말을 안 듣고 말씀에 무감각하

다. 출석 저조, 부모를 존중히 여겨야 한다(2). 아이와 함께 잠언을 읽으라.

오냐 오냐 해서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아이로 만들면 큰 죄를 짓는 것이다.

4.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는 것

구원받으면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서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취향대로 바뀐다. 인생관, 역사관, 사회관이 바뀐다.

이런 변화는 꾸준히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교제할 때 나온다.

그러므로 일주일에 하루 교회에 와서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게을리 하지 말라. 이것이 큰 죄이다.

결론: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한다. 큰 것이 아니라 주변의 작은 일들